

순정이

“누구든지 나의 제자가 되려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모두 버려야 한다.”
(루가 14, 33)

연중 제23주일

제 1독서 : 지예9, 13-18

제 2독서 : 필레8a-10, 12-17

복 음 : 루가14, 25-33

강론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경규봉 신부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가 살아야 하는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 가르치신다.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누구든지 자기 부모나 처자나 형제 자매나 심지어 자기 자신마저 미워해야 된다고 가르치신다. 이 말씀은 자기 자신과 친지들을 미워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되 하느님과 예수님을 그들보다 더 사랑해야 한다는 가르침이다. 나아가 가정이라는 편안함 속에 파묻혀 그럭저럭 생을 보내고자 하는 유혹을 끊어버리라는 가르침이다.

둘째로 예수님은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당신을 따라야 한다고 가르치신다. 십자가란 곧 희생과 죽음을 의미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과 의무, 소명을 의미하기도 한다.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희생제물이 되셨듯이 예수님의 제자는 다른 이들의 죄를 대신하여 희생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가르침이다. 또한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과 의무, 소명을 다하라는 가르침이다.

셋째로 예수님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모두 버려야 한다고 가르치신다. 재산이나, 지식이나, 힘이나 할 것 없이 그 어떤 것이라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느님을 믿고 의지하기 어렵다. 자신이 가진 것으로 인하여 아쉬움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하느님의 도우심을 필요로 하지 않게 되고, 자만과 교만에 빠지기가 쉽다. 때문에 예수님은 모두 버리라고 가르치신다.

이러한 가르침에 따라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정말 어렵고 마치 죽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러나 우리의 스승이요,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소 그렇게 사셨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부활의 영광을 미리 보여주셨기 때문에,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이 세상을 참되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크리스천으로서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 줄 것이다.

소리

전북은 외돌토리

전북은 외돌토리인가. 들러리인가. 다음해 정부 지원예산이 요구액의 절반수준에도 못 미치게 반영 되리라는 조짐은 많은 의문을 남긴다. 입장 바꿔 생각하면 그럴만도 하다. ‘광주·전남은 그 곳에 큰나 무가 있으니 그렇다 하더라도 아무리 수양산 그늘 강동 80리라지만 전북은 뭐냐?’ 한다면 선뜻 할말은 없다. ‘미운 자식 떡 하나 더 준다’고 우리의 의사 표시를 표로 던졌더니 그것이 불쾌해서인지, 전북은 이래저래 덕을 못보고 있다. 이쪽 저쪽 모두 챙겨주질 않는다. 한쪽은 미워서고 한쪽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 들여서다.

정부는 돈도 안 주고, 여당은 연계없다며 거들떠 보지도 않고, 야당은 부지깅이를 세워 놓아도 움이 돌는다면 방관하는 지역이 되고 말았으니 그 책임은 과연 어디에 있는가. 얼핏하면 결의안 따위나 발표 해서 무슨 호형이 있으며 뻔질나게 상경만 한다고 누가 예뻐하는가. 이제 전시적인 행태는 버려야 한다.

조직적이고 체계적이며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기구와 대책으로 도민의 마음을 한데 엮어야 한다. 그런데 ‘팔로 메주를 쏜다’해도 믿어 줄 전북의 지도자가 있는가. 인물을 키웠는가. 그렇다고 전북이 아니면 어느 지역도 흉내낼 수 없을 만큼의 특색사업이나 상징이 있는가. 답답하고 한심한 노릇이다. 외토리 신세만 타들어서 될 일인가. 언제까지 들러리만 설 것인가. 우리도 이제 우리 것을 찾고 가꾸어야 한다. 내 타임을 빼져리게 통감하고 실천으로 우리의 자존심을 되살려야 한다. 문

순정이 산책



성서교실 58

“너희는 나에게서 자식을 하나하나 빼앗아 가는구나”
(창세 42, 26-43, 14)

형제들은 곡식 자루에 돈이 들어 있는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가나안을 향하여 길을 떠난다. 도중에 야영을 하는 자리에서 나귀에 여물을 주려고, 곡식자루를 풀다가 돈이 그대로 들어 있는 것을 발견한다. “하느님 말씀사. 이게 어찌된 일이나?”라는 표현은 본문대로라면 “하느님이 하신 이 일은 무엇인가?”로써 하느님만이 아실 수 있는 수수께끼 같은 일이 일어났다는 말이다. 이 수수께끼는 하느님과 요셉만이 알 수 있다. 그들은 야곱에게 돌아와 그간의 모든 자초지종을 상세히 보고한다. 그리고 곡식자루들을 풀어보니 자루마다 곡식대금인 고스란히 들어 있는 것이 아닌가? 야곱과 그의 아들들은 이 사건에 무슨 책략이 들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그것에 에집트 관리들의 실수에서 나온 것 같기도 하고, 도무지 불안하기 짝이 없었다. 그보다 더 야곱의 마음을 편치 못하게 한 것은 에집트 재상의 제안이다. 왜 하필 자신이 애지중지하는 베냐민을 요구하느냐 말이다. 그래서 아들들에게 불만을 털어 놓는다. “너희는 나에게서 자식을 하나하나 빼앗아 가는구나.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는데, 이제 베냐민마저 데려가겠다는 거냐?” 이 말은 야곱의 심정을 반영한 것이다. 야곱은 요셉이 맹수에게 찢겨 죽었고, 시므온은 에집트의 재상에게 억류되어 있으며, 베냐민은 시므온을 구출하기 위해 보내야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요셉을 잃은 후 모든 책임이 못한 자식들에게 있는 것처럼 느끼고 있었는데, 베냐민을 데려가야 한다는 말을 듣고 감정이 폭발하여 아들들에게 다짜고짜 퍼부은 것이다.

르우벤은 탄식하고 있는 야곱에게 베냐민을 데려오지 못하면, 야곱이 자기 두 아들을 죽여도 무방하다고까지 한다. 르우벤의 이 무모한 제안에 야곱이 동의할 리가 없다. 아들의 생명을 보장받기 위하여 두 손자의 생명을 담보로 잡아 둘 야곱이 아니다. 그러나 적어도 르우벤의 말 속에서, 형제들이 늙으신 아버지를 염려하는 쪽으로 변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요셉을 잃은 후 아버지는 동기인 베냐민에게 편애를 하였겠지만, 형제들은 이제 더 이상 거기에



베냐민을 데리고 가는 요셉의 형제들

신경을 쓰지 않고 있음이 분명하다. 야곱은 르우벤의 제안을 들은 채도 하지 않고, 베냐민을 결코 에집트에 보내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한다.

그런데 기근이 점점 심해져 에집트에서 가져온 양식도 동이 나버린다. 그래서 야곱은 아들들에게 에집트에 다시 가서 양식을 사오라고 분부한다. 이번엔 르우벤 대신 유다가 나서서 베냐민을 동반해야만 에집트의 재상 앞에 설 수 있다고 역설한다.

이야기를 다 듣고 난 야곱은 결단을 내린다. 그러나 위기 상황에 지혜롭게 대처해온 이 경험 많은 노인은 이 세 가지를 아들들에게 지시한다. 기근으로 시달리는 가나안 땅에서는 아무 쓸모도 없을 갖가지 종류의 지방 특산물들을 선물로 가져갈 것, 돈은 배상의 의미로 두 배를 준비할 것, 그리고 자루에 들어 있던 돈도 되돌려 주도록 하는 것이다. 야곱은 자식들에게 이별의 축복을 내려 주면서 베냐민을 맡긴다. “하지만 자식을 잃어야 한다면 잃었지 별 수 있겠느냐?”라는 야곱의 탄식은 자포자기적인 그의 심정을 잘 나타내 준다.

이 과에서 우리는 집안 식구들을 기아로부터 건져야 하고, 동시에 슬픔에 젖어 있는 아버지를 위로하며, 또 다른 자식을 빼앗길까봐 전전긍긍하는 아버지를 안심시키기 위해 전적인 책임을 지고 나서는 르우벤과 유다의 태도에서 행동하는 양심을 볼 수 있다.

최첨단 부엌가구
ENEX 전복종합전시장
박 영 근(공사가)
장 정 신(젬 마)
전주시 덕진구청 앞
☎ 75-0523~4
FAX (0652)75-0524

이 전
코아 에스에스 패션
· 로가디스,이브생로망,위크엔드
· 버킹검,아스트라,빌트모아
· 런던포그,크레센도,포엔모아
정수천(시몬)·강숙기(지다)
코아백화점 4층
☎86-2884, 80-1404

(주) 한국삼베 전북총판
최고급 전통수의/Q마크획득원단제품
삼베양말/무좀예방,삼베이불
이경민(안토니오) 임경란(수산나)
전주 서부 우회도로 천하장사 옆
☎(0652)212-6639,7046
호출기 012-682-6631

개 원
승수중 치과의원
원장 승수 중(빈첸시오)
완산동 직행터미널(앞)
☎ (0652)84-2875~6

잠깐

가든 음악회를 열며

오랜문화의 역사를 지닌 전주교구 전동 성당은 한국 천주교회 최초의 순교지일 뿐만 아니라 최고의 성지(聖地)이다. 이곳 전동 성당은 천주(天主) 신앙과 구원의 복음을 따르기 위해서 세상의 영화를 버리고 자신의 목숨까지도 기꺼이 바친 신앙선조들의 발자취가 스며들어 있는 곳이다. 한국 최초의 순교자인 윤지충(바오로)와 권상연(야고보)가 봉건시대의 모순을 극복하고 천주교 신앙을 지키기 위해 1791년 풍남문 밖에서 참수치명 당한 것을 시작으로, 호남지방에 처음으로 천주교 신앙을 전파한 유허검(아우구스티노)와 그 동료들이 숨을 거둔 이 곳은, 또한 부부이면서도 서로 동정(童貞)을 약속하고 죽기까지 이를 지키던 유중철 요한과 이순이 루갈다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역사와 문화의 흔적 위에 순교자들의 정신을 이어받고자 하는 천주교 신자들에 의해 전동 성당이 설립되었고, 그로부터도 어느덧 10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다. 1914년에 중국인 시공자에 의해 완성된 전동 성당 건물은 옛스럽고 정갈한 분위기로 복잡한 도심 한복판에 차분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또한 몇 년 전에 조성된 잔디밭은 천주교 신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에게도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있다. 최근에 들어선 순교자들의 동상과 석상, 전주교구 7인 순교자 그림은 다른 지역에서는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독창성을 가지고 있으며, 전동 성당 건물과 잘 어우러져 예술공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런 역사와 문화적 가치를 지닌 전동 성당에서 오는 9월 23일 저녁 7시부터 순교자들의 넋을 기리고 정신을 이어받고자 하는 마음에서 '음악회'를 연다. 가을밤의 정취가 물씬 풍기고 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때, 도심 한복판의 답답함을 훌훌 벗어버리고 순교자들의 삶을 기리며 '음악회' 분위기에 흠뻑 젖어보는 것도 좋을 성 싶다.

전동 성당 사목회

교구 소식

1. 사제 연수회 : 9월 12일~15일 오전10시30분 나바위 피정의 집
2. 김반석 신부님 금경축 : 9월 15일(금) 오전10시30분 나바위 성당
3. 성직자 묘지 미사 : 9월 16일(토) 오전10시30분
4. 수녀 연합회 연수 : 9월 12일(화) 오전10시 가톨릭센터
5. 순교자 현양을 위한 강연회 : 9월 20일(수) 오후7시30분 전동 성당
강사-김진소 신부
6. 순교자 현양의 밤 가든 음악회 : 9월 23일(토) 오후7시 전동 성당
※ 축! 영명 : 13일(성 요한 크리소스도모) 오성기 신부님

요심이 (1149) 김병오



감사드립니다

부친(서기홍 분도·68세)을 잃은 제회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 영원한 안식을 빌어주시는 주교님, 신부님, 수녀님, 그리고 모든 신자분들께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서종현 신부

성바오로 딸 수도회 성소자 피정

- 때 : 10월1일(일) 오전 9시
- 장소 : 군산 대야 성당
- 준비물 : 신앙성서, 묵주
- 회비 : 3,000원
- 접수 및 문의 : 9월25일까지 성바오로 서원 ☎ 252-3398

김제요촌 성당 설립 60주년 기념 바자회

- 때 : 9월21일~25일(5일간)
- 장소 : 요촌 성당
- * 바자회 수익금은 '60주년 기념관' 건립기금에 사용됩니다.
- 전주교 요촌 교회 사목회장 조운식(요한) 주임신부 문규현(바오로)

덕진 삼익피아노

(서정우 특약점)

- 국가공인 1급 A/S 지정점
- 36개월 할부, 중고보상교환
- 서정우·이혜경(글리라) 북전주전화국←→법원 중간 ☎ 253-3232

코아 삼익피아노

- 현금가 6개월 무이자 할부판매
- 각종 신용카드 현금가 할부판매
- 일반악기 전품목 할부판매 및 도소매
- 철저한 책임관리 및 사후 서비스 ☎ 86-1181, 83-5332
- 호출기 015-670-1651

교회출판물보급사원 모집

1984년, 103위성인 탄생과 함께 창립된 출판사입니다. 순교정신으로 문서 전교를 하실 신자 초대

- 주부도 가능, 전주·이리지역
- <문의> (02)886-4303
- 성황석두루가서원/천주교문학

오순절 평화의 마을 평화재활원 기공식

- 일시 : 9월14일(목) 오후 2시
- 장소 : 경기도 여주군 평화재활원
- 주례 : 김남수 주교
- 문의 : 여주(0337)84-0522
- 삼랑진(0527)52-4241
- 서울(02) 774-8025
- 부산(051)782-0765~6

■ 남전주지구 본당소식 ■

*** 노송동** 사제관 82-9663 사무실 82-9661 주임신부 범영배
수녀원 82-9662 사목회장 김동주

- ◎ 연중 제23주일 : 9월은 순교자 성월입니다.
- 1. 사제 연수회 : 12~15일 나바위
* 본당에서는 미사는 없고 말씀의 전례가 있습니다.
- 2. 김반석 신부님 금경축 : 15일 나바위
- 3. 모임 : ①장우회(오늘 공식미사 후)
②부녀회(13일 전 10시30분)
③제수형제회(16일 후 2시)
④대건회(17일 공식미사 후)
- 4. 금주 청소 : 중노 6, 8반
차주 청소 : 중노 9, 10반

*** 서학동** 사제관 84-8307 사무실 86-4929 주임신부 이종원
수녀원 84-2276 사목회장 민병부

- 1. 금주 모임 : 프란치스코삼회-9월10일(일) 후 2시, 장소-강당
성심회-9월13일(수) 전 10:30, 장소-회합실
울뜨레아-9월14일(목) 후 7:30, 장소-회합실
- 2. 차주 모임 : 성모회-9월17일(일) 공식미사 후, 장소-유아방
- 3. 첫영성체 대상자 모임
①교리일시 : 9월13일(수)~10월13일(금)
화, 수, 목, 금(오후 4시)
②대상 : 초등부 3학년~6학년
③교제대금 : 1,200원
④첫날 모임 : 9월13일(수) 후 4시(부모님 증한분 꼭 참석바람)
⑤첫영성체일 : 10월14일(오후 4시미사)
* 신청은 교제대금과 함께 교리교사나 사무실에 하시기 바람
- 4. 예비자 교리 안내 : 매주 일요일 오후 5시30분.
장소-1회합실
- 5. 청소 안내 : 금주-사랑하움 어머니,
차주-사랑의 쉼

*** 복자** 사제관 86-3453 사무실 86-3455 주임신부 정승현
수녀원 86-3454 사목회장 황길평

- 1. 축! 김반석 신부님 금경축 : 15일(금) 나바위 성당
제1부 감사 미사, 오전 10시
제2부 축하식 및 축하연, 오전 12시
- 2. 교구 사제 연수 : 12일(화)~15일(금) 나바위
- 3. 남전주 지구 중·고 학생 체육대회 : 9월17일(다음주일)
해성고, 학생 여러분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 4. 모임 : 요셉회-오늘 공식미사 후
청년회-오늘 저녁미사 후
안나회, 자모회-14일(목) 오전 10시
- 5. M.E 소개 모임 : 24일 공식미사중
금주 전례 : 해설-최용남, 독서-지해룡 부부
봉헌-조윤일 가족
차주 전례 : 해설-오교성, 독서-라경실 부부
봉헌-송명진 가족
- 6. 성당 청소 : 9월 16일(토) 황금 궁전Pr, 성모 성녀Pr.

*** 전 동** 주임신부 81-0098 사무실 84-3222 주임신부 김봉희
보좌신부 82-7245 수녀원 82-9234 보좌신부 박동진
F A X 82-6232 유치원 84-8347 사목회장 이명형

- ◎ 연중 제23주일 : 9월은 순교자 성월입니다.
- 1. 금주 : ①일치의 모후 꾸리아(후 2시)
②자모회(전 10시)
- 2. 사라회 : 12일(전 11시)
- 3. 나자렛회 : 12일(전 11시)
- 4. 에루살렘회 : 13일(전 11시)
- 5. 사베리오회 : 13일(후 7시30분)
- 6. 돈보스코회 : 13일(후 7시30분)
- 7. 구역반장 모임 : 14일(전 11시)
- 8. 유아 세례 : 16일(서큐는 사무실에서 받아가세요)
- 9. 사제 연수 : 12일~15일 많은 기도 바랍니다.
사제 연수 관계로 12일 저녁미사, 13일 새벽 저녁, 14일 새벽 저녁, 15일 새벽미사는 말씀의 전례로 대신합니다.
- 10. 순교자 현양의 밤 가든음악회 : 9월23일(토) 저녁 7시 잔디밭,
신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홍보 부탁드립니다.
- 11. 순교자 현양을 위한 김진수 신부 초청 강연회 : 9월20일(수) 저녁 7시30분 강당
- 12. 차주 : ①바비의 성모Cu. (후 2시)
②사목회(후 8시)
③청년회(후 8시)
- 13. 감사헌금 : 오형순(안젤라) 8,000,000원

*** 상 관** 사제관 85-6654 사무실 85-6652 주임신부 한봉섭
수녀원 85-6653 사목회장 양주태

- ◎ 9월은 순교자 성월-순교정산을 우리의 삶으로 증거합니다.
- ◎ 연중 제23주일 주일미사를 결하지 않습니다.
- ◎ 정성된 기도와 봉헌(주일헌금, 교무금)은 신자의 의무입니다.
- 1. 모임 : ①안나회-공식미사 후
②장년회-16일(토) 저녁 8시, 성당
③새 영세자 모임, 성가대-다음주일
- 2. 지속적인 성체조배 : 14일(목) 저녁미사 후-금요일 미사 전까지
- 3. 장년회, 자모회 나들이 : 18일(월) 하동, 청학동 썩계사
- 4. 교무국은 세대별로 정성껏 봉헌합니다.
- 5. 신부님 피점 : 12일~15일, 나바위 피점의 집
- 6. 성당 청소 : 금주-성실하신 동정녀Pr.
차주-사랑하움 어머니Pr.
- 7. 금주 전례 : 해설-유만순, 독서①한동욱 ②이순자
봉헌-한동산 가정
차주 전례 : 해설-김영신, 독서①최경림 ②송정자
봉헌-박복동 가정

*** 평화동** 사제관 85-6979 수녀원 87-0229 주임신부 이재후
사무실 83-8245 F A X 82-6686 사목회장 강상근

- ◎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루카 14, 27).
- ◎ 견진성사(24일) : ①대상-중1부터 견진성사 받지 않은 전신자
②중·고생 교리-오늘 후 5시(성당)
③자세한 사항은 성당 입구 유인물 참고바랍니다.
- ◎ 성령 쇄신 강연회 : ①기간-11일~16일(월~토) 저녁 7시30분
②견진성사 대상자는 의무
③자세한 사항은 성당입구 유인물 참고바랍니다.
- 1. 본당 신부님 연수회 : 12일~15일, 나바위-연수기간 동안 사제 들을 위한 기도바랍니다.
- 2. 성령 세미나 기간 미사시간 안내 : 11일~12일 오전 5:30 미사, 13일~14일 말씀의 전례-저녁 7시, 15일~16일 저녁 7시미사
- 3. 성소 후원회 날 : 17일 공식미사 후, 회비-매미사 전후 남부
- 4. 회의 : 성체회-오늘 공식미사 후
임마누엘, 한빛회-17일 공식미사 후
울뜨레아, 몽송회-24일 본당의 날로 인하여 17일 공식 미사 후
청년회-17일 저녁미사 후
- 5. 축! 금경 : 김반석(베네딕도) 신부님-감사미사 및 축하식-15일 10시30분(나바위 성당) 영육간의 건강을 위하여 신자들의 많은 기도바랍니다.
- 6. 96년 월력 광고 신청 : 광고 크기 가로 4cm 세로 5cm
광고분안 작성하여 24일까지 사무실에 신청바랍니다.